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1.1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네덜란드, '테러조직' 혐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원조 중단
 - 1.6 네덜란드 정부는 '21.10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'테러조직'으로 지목되어 제재를 받게 된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(NGO) '농업위원회 협동조합(UAWC)'에 대한 자금후원을 18개월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
 - *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“이번 조치는 정부 자체조사에서 '19년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同 단체의 연계성이 확인되어 결정된 것” 이라고 부언
- 英, 테러조직 연계 초등학교 교사 직위 박탈
 - 1.11 英 교육부는 테러단체와 연계된 개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극단주의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「미리엄 세바그」(52세, 여)를 교직에서 영구 해임했다고 발표
 - * 同인은 '신앙의 일환으로 무슬림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했을 뿐'이라며 범행 부인

미주

- 美 국토안보부,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위협 경고
 - 1.6 「알레한드로 마요카스」 美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회의사당 공격 1주기를 맞아 폭력적 극단주의는 미국의 “가장 큰 테러 위협”이며 지난 1년간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언급
 - * 장관은 국회의사당 공격 1주기를 상기할만한 위협은 현재 없으며, 국토안보부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
- 美, 이란의 미국인 제재 대상 리스트 등재 강력 경고
 - 1.9 「제이크 설리번」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이 美 합참의장 등 미국인 51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 “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”이라고 강력 경고
 - * 이란은 '20.1월 미국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'솔레이마니' 사령관 2주기에 맞춰 美 합참의장·前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제재 대상에 등재

아 · 태평양

○ 탈레반 부총리, 국제사회의 긴급 원조 호소

- 1.8 「바라다르」 탈레반 정부 부총리는 국영방송사(RTA) 연설을 통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프간의 심각한 상황을 언급, 정치적 편견 없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긴급 원조를 호소

* 탈레반 최고위급 지도자가 자국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제 사회에 직접 인도주의적 도움을 요청한 첫 사례

○ 외교부, 예멘 반군 UAE 선박 나포 규탄

- 1.7 외교부는 지난 1.2 후티叛軍이 예멘 호데이다 연안을 향해 중이던 UAE 국적 선박을 나포한 것과 관련, “선박의 안전 항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”이라며 즉각 선박과 선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

* 외교부는 “중동지역 내 항행의 자유, 해양 안보 및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”고 강조

중 동

○ 시리아 · 이라크, 美연합군 기지 미사일 피격

- 1.5 美연합군이 주둔 중인 시리아 · 이라크 군사기지 3곳에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으며, 자신들을 ‘사라야 거셈 알 자바린’이라고 칭한 민병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

* WSJ(월스트리트저널)은 美연합군 기지 공격이 「솔레이마니」 사망 2주기인 1.3부터 3일 연속 이루어졌으며 피해는 없으나 추후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에티오피아 叛軍, 정부軍 드론공습으로 민간인 56명 사망 주장

- 1.8 에티오피아 무장叛軍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(TPLF) 대변인은 에티오피아 정부軍의 드론 폭격으로 내전을 피해 티그라이 지역의 데데비트 수용소로 피했던 피난민 등 민간인 56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

* 同 공습에 대한 확인과 문의에 대해 정부·軍당국은 현재까지 無반응

토고 축구 대표팀 테러 사건

- '10.1.8. 앙골라 카빈다 지역에서 토고 축구 국가대표팀 버스를 겨냥한 총기테러가 발생, 3명 사망(코치·팀대변인·운전기사) 및 9명 부상
 - 당시 대표팀은 1.10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개막되는 '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' 참가를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앙골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던 중 무장괴한들로부터 피격
- 사건 직후, 카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叛軍단체 '카빈다 해방전선'(FLEC)은 "대회를 치르지 말라는 우리의 경고를 조직 위원회가 무시하였다"며 사건 배후를 자처
 - 앙골라 당국은 이번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, 이후 현지 경찰은 테러사건 용의자 2명을 검거
- 결국, 토고 축구대표팀은 본국 철수령을 따라 대회출전 포기後 귀국 하였으며, 이후 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인기 스트라이커 「에마뉘엘 아데바요르」는 同 테러 충격으로 토고 대표팀 은퇴를 선언
- 한편, 同 사건으로 그해 6월 예정된 남아공 월드컵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, 「제이콥 주마」 남아공 대통령은 "軍·警이 확실히 준비중이다"라고 밝히며 총기류 8만여정 폐기 등 안전활동을 강화

< 카빈다해방전선(FLEC) >

- (결성) 1956년 포르투갈이 식민지이던 카빈다 지역을 앙골라에 강제편입시키자 해당 지역민들이 다양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는데, FLEC는 1963년에 조직된 주요 무장정파 中 하나로 1975년 해방시 카빈다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 구성
 - * 1975년 앙골라와 카빈다는 각각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으나 앙골라가 카빈다를 침공해 양측은 2002년까지 전투를 전개
- (목표) 1975년 앙골라 독립이전에는 對포르투갈 저항운동을 전개했으나 이후에는 카빈다 지역 분리 독립활동으로 선회
- (테러) △'00.5 외국인 3명 납치 △'01.3 외국인 5명 납치 △'10.1 토고 축구 대표팀 공격 등